

The Meaning of Parenthood and Christian Educational Care

부모 됨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돌봄

이정관(Jeung-Gwa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sponse and solution through Christian educational care to the crisis and change of the era of low birth rate faced by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proposes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biblical aspect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hood as God's blessing for the demographic cliff and low birth rate problem that have become a reality in Korean society and churches. Being a parent in an age of low birth rate is very difficult, but on the other hand, it gives happiness and joy. Being a parent is a blessing from God, and i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thing in life. However, modern society emphasizes the right and necessity to choose one's own parenthood status. In the nuclear famil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 research, parents feel more responsibility and economic burden for raising children than ever before. Therefore, it is a reality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delay becoming parents or voluntarily do not have children is gradually increasing.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becoming a parent due to a decrease in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rom a Christian educa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of being a par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birth and rearing, and to analyze past and present value changes. This study will also discuss the causes of low birthrate and try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al care for childcare including solving the low birthrate problem.

Key Words

Parenthood, Prospective parents, Low birth rate, Christian education, Values, Pregnancy and childbirth

부모 됨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돌봄

The Meaning of Parenthood and Christian Educational Care

이정관(Jeung-Gwan Lee)**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 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 주제어 〉

부모됨, 예비 부모, 저출산, 기독교교육, 가치관, 임신과 출산

I. 들어가는 말

오늘의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미래가족연구회, 2012, 179).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인 문제만 아니다. 교회에 경제적 위축과 같은 재정위기,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 및 젊은 층의 이탈 문제(이수인, 2019)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저출산 문제는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가 교회학교 폐쇄라고 하는 교회학교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적인 부모 됨의 연구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식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 됨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부모 됨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유는 부모가 된 이후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고 체득하는 것보다, 청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 됨에 대한 동기 및 의미 부여는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됨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은 결혼 및 출산 그리고 부모 역할에 고민하는 예비 부모에게 부모 됨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 및 청년기에 적합한 건강한 부모 됨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이나 앞으로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송규운, 송나리, 2018)을 연구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

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부모 됨의 포기

현대 기독교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만 여기고,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개념은 초저출산으로 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복 주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와 사회가 된 것이 더 큰 요인이다(정갑순, 2006). 1990년 이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와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부모 됨의 포기과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은 학습자 수 감소와 교회학교 폐쇄라고 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모 됨의 포기의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저출산과 원인

1) 저출산

현대는 부모 됨이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과 결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 동반하여 저출산 문제는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첫째는 과도한 육아 비용과 교육비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년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과 함께 비정규직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취업난은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의 부족과 함께 고용 불안정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셋째 자녀가 없는 삶을 즐기는 가치관 변화와 함께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저출산의 요인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잘 조성돼 있지 않다. 결국, 여성들은 직장과의 결혼, 일과 출산 중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다섯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 책임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편중된 것이 출산을 주저하거나 보류하는 요인이 된다. 가정에서 육아나 가사 참여를 여성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여성에게 출산이 부담스럽게 인식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박상진, 2014).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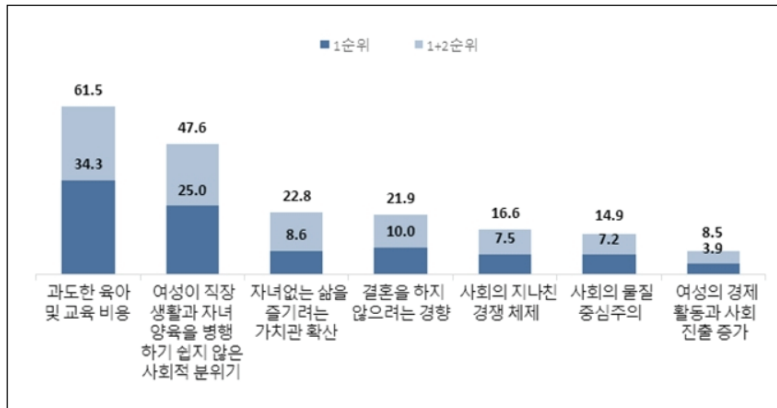
문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 실업 문제해결, 여성 고용조건 변화, 자녀 양육에 재정지원 등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하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며, 교회 교육이 분명히 감당할 몫이 있다. 그 몫은 예비 부모의 의식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경에 근거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출산으로의 인식변화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2) 저출산의 원인과 현실

이수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무자녀 결정요인은 내생적 성향, 자신에게 충실한 삶의 추구, 주위의 영향, 양육 자원의 부족, 높은 부모 됨의 책무성, 인위적 임신의 부담감이라는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하는 엄마와 가정에서 일의 양립에 있다. 그리고 결손가정, 이혼가정, 편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기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가정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결혼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결혼 기피, 만혼 그리고 출산 연기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약화 된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에서 2022년 1월 10일까지 전국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지엽리서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조사한 출산에 관한 종교인별 인식조사 결과는 응답자 5명 중 3명은 '과도한 육아 및 교육비용'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고,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두 번째로 꼽았다. 응답 결과는 경제적 문제, 사회적 인식, 여성의 사회진출 및 출산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즉, 저출산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조건 개선과 과도한 육아 및 교육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기독일보, 2022, 3).

특히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오늘의 저출산 문제 배경에는 첫아이 출산이 후속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 개인 가치관의 문제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첫아이 양육을 통해서 경험하는 부모의 심리적 현상인, 양육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보람, 양육에 대한 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현정환, 2017).



[그림 1] 저출산 이유(출처:지앤컴리서치 통계자료 2021년12월-2022년 1월)

다시 말해서 성인이가 되면 자녀를 출산하여 생산성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202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 896만 4천 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리고 현대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양육비만 아니라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변화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 사회적 지휘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 기피, 경력단절과 하는 일이 바빠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자녀는 도움보다는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2.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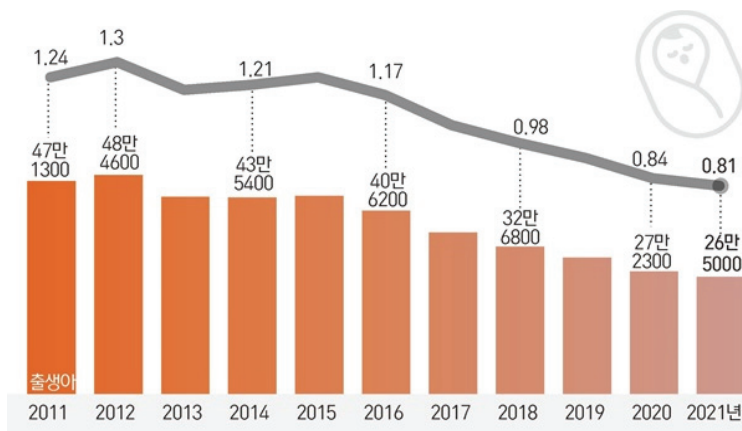
가치관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가치로는 결혼관, 임신과 출산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되돌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해야 함을 아는 현대 젊은이들은 더더욱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됨의 인식은 자녀 출산에 대한 선택과 관계가 없다. 부모 됨은 부모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보상과 대가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다. 부모 됨의 보상적 측면은 자녀로부터 획득되는 성취감, 만족감, 기쁨과 기대 등이 있다. 그리고 대가적 측면은 부모 역할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미숙함 등이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됨을 일종의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부모 됨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즉 부모로서 자녀가 가정에 경제적 기여보다는 오히려 양육의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즉,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다. 이처럼 최근 저

출산의 주요 요인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중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비용의 급증은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됨의 보상이나 대가에 대한 인식이 예비 부모들의 부모 됨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과 청년기에 있는 예비 부모에게 부모 됨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서 부모 됨의 인식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부모 됨의 동기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 등이 부모 됨의 동기가 된다. 그리고 부모 됨의 동기는 부모 역할과 책임 그리고 부모가 갖는 부담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의 적응을 도움으로 부모 역할 수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부모 역할 수행으로서 자녀 양육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과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른 도움이나 지원 정책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정책과 예산투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예산투입이 올바르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비 부모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역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족 전통, 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오랜 기간 영향을 받아왔다. 1980년대까지 높은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 또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즉, 현대 우리 사회는 시대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치를 무엇보다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인식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혼란 함께 출생률 저하라는 현실을 접하고 있다.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출산율은 1980년 2.83명 2019년 0.92명,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0.81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총 380.2조 원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로 나타난 출산율 하락은 오히려 가팔라졌다. 이러한 저출산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됨에 대한 사회적 의식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 됨을 선택하는 주체인 청년층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 됨의 사회적 의미와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주, 2006).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특징은 21세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무자녀 가정(기혼자 중 출산 경험이 없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한곤, 2014).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자녀 비율은 1990년대 중반 3.6%였으나, 2010년 6.8%로 증가하였다(조성호, 이지나, 김근태, 2021,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2005)에 따르면 2000년에는 무자녀 부부가 약 25만 8천 쌍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2010년에는 약 33만 3천 쌍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인희 외, 2015, 26). 통계청에서는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신혼부부(결혼 후 5년 미만)를 대상으로 무자녀 부부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2015년의 무자녀 비율이 35.5%였던 것에 비하여 2019년에는 40.2%로 4년 동안 4.8%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2020). 특히,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집단에서, 비자발적 무자녀 가정(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자발적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김한곤, 2014). 그리고 자녀 필요성에 관한 가치관이 기혼과 미혼 공이 무자녀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성호, 이지나, 김근태, 2021, 12).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1985년 8.9%(오영희 외, 2016)에서 2018년 1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그리고 미혼남성은 2009년 12.9%(이삼식 외, 2009)에서 2018년 28.9%(이소영 외, 2018)로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은 2009년 14.6%(이삼식 외, 2009)에서 2018년 48.0%로 증가하였다(이소영 외, 2018). 이러한 자녀 필요성 의식 감소는 현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림 2] 출생아·합계 출산율 추이

전통적으로 부모교육이나 가족 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부모 됨이나 부모기가 임신을 전후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모 됨이 임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부모 됨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부모 됨은 임신과 자녀 출산 경험보다 훨씬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계숙, 정현숙, 2002)

3. 자녀 필요성의 인식변화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10대는 60.6%, 20대는 52.5%가 결혼 후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식변화 속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의 욕구가 변화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사회적 변화와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필요성에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4.5%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나, 여성의 경우 없어도 된다(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43.3%)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녀 가치 및 기대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의 수단적 가치(노후의 경제적 도움, 집안의 혈통 잇기, 출산은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수준은 낮으며,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부부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3.33점/4점 만점) 조사하였다(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부모 역할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기혼 유자녀 부모의 49.4%는 자신의 부모 역할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며,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46.1%가 경제적 지원 부족을 지적, 한편 30대는 양육지식 부족으로 조사 되었다.

III. 부모 됨의 의미와 축복으로서 부모 됨

부모 됨, 즉 부모가 된다는 것! 현대는 부모 됨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부모 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다. 인간은 심리·사회적으로 자녀가 갖는 가치와 기능을 이해하면서 부모 됨을 결정한다. 그 외에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 구조 즉 직장과 취업, 경제력과 환경 여건 등의 요인들이 부모 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 부모 됨의 의미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이라는 사회 체계에 속한 하위체계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발달도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을 피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 부모 됨은 자녀 출산과 양육 등 부모 역할 수행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부모 됨 동기는 부모 됨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모 됨의 동기 형성은 부모로서 태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부모 됨에 대한 동기

형성은 개인의 생애 발달 주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부모가 되는 것은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부모 됨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포괄적인 개념은 임신과 출산 이전에 부모 됨의 개념과 인식, 그리고 자아상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체계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부부의 역할과 책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부모 됨은 삶의 주기에서 위기로 인식된다(Lawrence, et al. 2008).

2. 축복으로서 부모 됨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기를 위한 것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이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살며, 자녀를 두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마치는 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가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대로 경이롭고, 창조적이며,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부모 됨이다(Kesler & Beers & Neff, 1987, 23).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여자는 끊임없이 임신의 기적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과학적 연구와 노력이 임신을 가능하게 해줄 수 없다. 결국,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다. 임신 중 신체적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Aspy, 1978, 184).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신 기간을 준비하는 부모 됨의 기간으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은 인류의 복으로 연결되며(창 22:17), 야곱의 유언은 자녀의 복으로 연결되고 있다(창 49:25). 또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태의 복을 칭송하고 있다(눅 1:41-42). 태의 열매는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정갑순, 2009). 결혼과 자녀는 언약의 축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 계승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정 및 결혼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조성국, 2012).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는 태초부터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연과 시키는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다.

IV. 부모 됨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무엇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교회가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가르침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스스로 젊은 세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재영(2008)은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기독교 인구가 줄게 될 것만을 염려하여 기독교 인구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한다. 교회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축복과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부모로서 책임감과 긍지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정재영, 2008).

1. 부모 됨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정립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부모 됨의 의미를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형편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부모 됨에 대한 개념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결혼관과 가족관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선택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과업, 즉 결혼과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부모 역할이 기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남아있다(김은주, 2006).

그리고 현대를 사는 청소년들과 청년기의 예비 부모들은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로 전환으로 부모 됨에 대한 배움의 기회나 실제적인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모 됨에 대한 준비가 없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면서 많은 양육 부담을 느끼게 된다. 즉 구체적인 양육정보나 기술의 부족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대두되고 있다(정미라 외, 199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출산, 육아를 담당하게 될 예비 부모인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 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

교 교육적 돌봄을 통하여 강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기독교 교육적 돌봄으로 예비 부모들의 부모 됨에 대한 동기와 준비는 부모기가 되었을 때, 부모 역할과 책임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실제적 적응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 양육 태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부모 됨에 대한 올바른 동기와 양육관 형성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부모 됨의 준비는 예비 부모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의 초석이 된다. 완벽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녀를 낳을 완벽한 시기도 없다. 부부는 자녀를 두기 전에 적어도 자녀에 대하여, 자녀를 둘 것인지, 몇 명의 자녀들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은 일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일생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로서 걱정과 관심은 자녀의 모든 삶 속에 투영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의 과업이다. 그리고 흥미롭고, 온전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책임이다. 그러므로 부모 됨은 올바르게 준비되어 있고 그 중요성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Suderman, 1987).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 생애 중 가장 기쁘고도 두려움을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임신과 출산과 같이 생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2. 부모 됨의 준비와 동기부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부모란 자신을 낳아주신 분으로서 인생의 모델이자 나를 이끌어주실 수 있는 인도자 내지는 후견인으로서 절대적인 영원한 후원자이길 원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 됨의 준비와 동기부여는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 및 기초 선행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사려 깊은 반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자녀 출산 계획 여부에서도 잘 나타난다.

1) 부모 됨의 준비

부모 됨을 위해서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등 준비가 필요하다.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현재의 임신과 부모 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의 원 가족의 양육 경험의 다름이 부부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신체적으로는 부모의 건강 상태가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다.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부부는 자녀계획을 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임신과 출생 그리고 성장과 독립할 때까지 많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재정립이다. 부모는 자녀의 공동의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됨의 관계 변화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 부모로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자녀 양육 태도나 양육을 위한 정보획득과 지식 그리고 자녀 양육 기술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됨을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부모는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신앙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성숙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둘째,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와 대화하고 있는가?

셋째, 경제적인 것과 감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Bright, 1987, 52.)?

그리스도인은 예비 부모로서 잉태한 순간부터 태아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임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아기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태아일지라도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러나 태아를 하나님께 맡긴다 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영적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은 자연 발생적인 과정이다(Barden, 1987, 187). 그러나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선물은 마땅히 조심스러운 준비를 하고 받아야 한다.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자녀야 할 태도이다.

2) 부모 됨에 대한 동기부여

부모 됨의 의미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선택과 관계없이 부모 됨에 대하여 각자가 내리는 주관적 정의를 뜻한다. 이처럼 부모 됨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개인은 그의 의미에 근거하여 부모 됨을 선택하는 동기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가치는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와 반대, 즉 부모 됨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의 하나라는 점에서 부모 됨 동기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 역할 개념은 부모가 되기로 결정 후 자녀 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뜻한다. 즉 부모 됨의 의미는 부모 됨의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후 부모 역할 수행 즉 양육의 행동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된다. 즉 청년기 때의 부모 됨에 대한 인식의 영역을 확장 시키는 일은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담당해야 할 때 이들의 양육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됨의 의미가 자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

이 되었다. 부모가 된 성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 됨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비해서 건강한 부모 됨의 형성을 위한 자구노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발되는 부모 됨 형성 프로그램은 매우 적극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시대의 인식변화 흐름에 맞추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됨 동기와 부모 역할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임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모 됨 교육보다 청소년기부터 부모가 되어야 하는 동기는 물론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 됨 조기 중재 프로그램은 사회의 전반적인 표면화 현상과 맞물려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역할로서 부모 됨 교육

부모 됨을 위해서는 부모 됨을 이해하고 부모 됨의 역할과 기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 됨과 역할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모 됨의 개념화나 역할은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되지 않는다. 부모가 되기 전 부모 됨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 됨의 준비는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 역할 수행의 기초가 된다(김은주, 2006). 따라서 청년기에 부모 됨의 이해와 역할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적 돌봄이 요구된다.

교회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하여 세상적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독교 가치가 회복되도록 교육적인 돌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오는 참 만족과 감사가 자신의 행복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때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정갑순 61). 현정환(2017)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적 출산 의지가 높은 부모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적 출산은 최종적 자녀 수와 이상적 자녀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독교인의 출산은 부모의 출산 의지 및 실제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교회의 역할이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현정환, 2017).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이제까지 학계에서 제안해왔던 자녀 돌봄 지원이라는 지원전략보다는 기독교적 신앙관에 근거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이 효과적인 지원전략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현정환, 2017). 즉,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앙적 해석, 즉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송규운, 송나리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송규운, 송나리, 2018). 따라서 젊은 세대 즉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임신과 자녀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모 됨의 교육이 필요하다.

4. 교회의 역할로서 자녀 양육 공동체 지원체계 확립

교회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과 행정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공동육아 체제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공동육아 돌봄을 위한 탁아 프로그램, 아기 학교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박상진, 2014). 자녀는 부모와 교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고 실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현상의 극복은 이러한 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기초한 공동육아 지원체제가 확립될 때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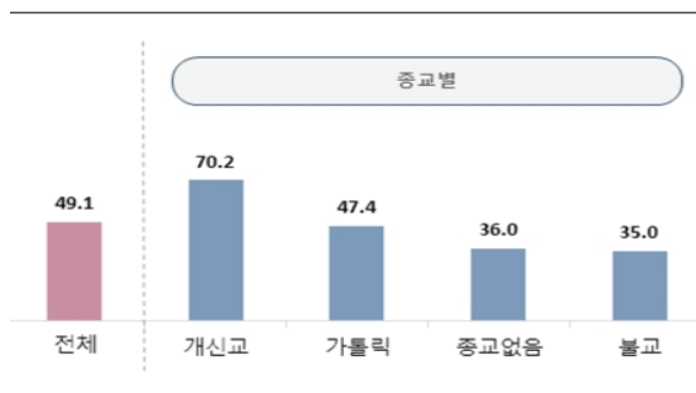
현재 지역사회 공동육아를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교회가 공동 육아의 자발성과 자율성 원칙을 증시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독립적인 공동 육아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선교에도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김성건, 2015). 교회는 공동 육아 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인 공간과 교회행정 그리고 인력 등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육아에 참여 부모와 봉사자 간 관계 또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된 여건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등 부모 됨과 역할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예비 부모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회학교 교육과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임신과 출산 교육 등을 통해 혼인, 출산과 가족의 가치를 신앙적 측면에서 한층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자체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로서 공동육아 사업 실시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김성건, 2015). 이와 더불어서 예비 부모들이 부모 역할에 관한 성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이 실행과 예비부모용 교육자료개발 및 배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과 저출산 극복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UCC 공모전이나 다자녀 가정 꾸미기, 모유 수유 등 부모 역할에 대한 교수-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임신·출산·육아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지속적인 예비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임신 전 관리와 태아 건강의 중요성을 교육적 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 부모와 부모,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낙태, 모성 관련법, 출산장려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정혜경 외, 2012).

5. 기독교 교육적 돌봄 중요성과 교육목표

출산을 증가를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적 돌봄인 신앙교육을 통한 출산 장려 교육이 필요하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고 적극적이다. 이것은 교회로부터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이다. 교회의 신앙교육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키우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엠리서치의 종교별 출산의 중요성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출산에 대한 교회 교육을 통해 출산을 적극적 장려한다는 응답이 26.8%, 출산을 장려하는 편이다 42.5%.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없다는 응답이 21.6%로 교회를 출산에 대한 가르침을 69.3%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은 출산에 대한 중요성 함께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된다.



[그림 3] 종교별 출산의 중요성(출처: 지앤컴리서치 2021년 12월-2022년 1월)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이 교회교육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됨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은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교재에 반영하여 정기적인 교회교육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발달단계별 교육 실행으로 젊은 세대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 됨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인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인식변화와 가치관과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예배시간의 말씀선포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친교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지 강의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현장을 탐방하거나 봉사활동을 함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박상진, 2017).

교회교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특별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와 의식의 변화, 가치관 그리고 태도의 변화이다. 성경에 근거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가치관 확립은 저출산을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교회 교육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인구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교회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거나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교회 교육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인구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상진, 2014).

박상진(2014)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기독교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목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관점 확립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현실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여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대 영역을 구분하였다.

- ① 생명존중: 성경에 나타난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깨닫고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를 갖는다.
- ② 가족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기독교적인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신앙계승: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통해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다.
- ④ 남녀평등: 성경에 나타난바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가사를 비롯한 가정의 제반사에 있어서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⑤ 복지사회: 저출산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 사회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가 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박상진, 2014). 고 하였다.

6.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교육 실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예비 부모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 실행이 요청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의 교회 교육과정에 결혼예비학교 등을 개설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독교적 신앙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결혼예비학교는 소그룹이나 1:1 만남, 멘토링 형태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학교, 태교 교실, 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결혼한 여성은 물론 남편과 함께 향후 가정을 설계하고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박상진, 2014).

그리스도인의 임신과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창 1:28).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실천이다. 임신과 출산은 가치관에 따른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은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임신과 출산은 의지나 가치관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의 소유는 현대 우리 사회의 임신과 출산의 기피 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부모 됨의 기독교 교육적 돌봄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독교 가치관 확립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예비 부모인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기독교 신앙관을 갖도록 관심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신앙교육을 해야만 한다. 송규은 송나리(2018)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공동체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출산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송규은, 송나리, 2018).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기독교적 임신과 출산의 가치관을 갖도록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즉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교육은 젊은 세대인 청소년 시기부터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돌봄이다. 따라서 예비 부모인 결혼을 앞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신앙교육이 마련과 실행되어야 한다(문우일, 2016).

젊은 세대인 예비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다양한 공동체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비 부모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고민과 더불어 교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예비 부모들을 위한 기독교

교 교육적 돌봄은 신혼부부, 임신과 출산, 태교, 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는 예비 부모들이 가정을 설계하고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될 것이다.

V. 나가는 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하라는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성경적 기독교 임신과 출산은 현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오늘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서 결단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 미래와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저출산의 문제는 이러한 소망 없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소망이 있다면(이수인, 2019), 모두가 자녀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자녀 출산보다 삶에 지쳐 있다. 이 불확실성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적인 돌봄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임신과 출산이, 오늘의 젊은 세대와 한국 사회에 소망과 격려가 되는 유의미한 사역 감당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성건 (2015).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9(1), 77-106.
- [Kim, S. K. (2015). Korean protestant church amid social problems of low birthrate and aging. *Theology and Society*, 29(1), 77-106.]
- 김은주 (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등의. *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Kim, E. J. (2006). Correlation study on the motivation to become a parent and understanding of parents' role by wome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1), 89-95.]
- 김한곤 (2014).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959-972
- [Kim, H. G. (2014). Trends and socio-economic factors impacting on married couples' childlessness among Korean provinces : 1990~2010.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959-792.]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Moon, M. K. & Cho, S. I. & Kim, C. M. (2016). *A study on Koreans' perceptions of parenthood and childcare centers*.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문우일 (2016).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비판과 기독교계 참여 가능성에 대한 탐색. *신학과 실천*, 52, 799-825.
- [Moon, M. I. (2016). The church is the most influential group that fosters south Korea's polisies against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eology and praxis*, 52, 799-852]
- 미래가족연구회 (2012). **결혼과 가족**. 서울: 양서원.
- [Future Family Research Society (2012). *Marriage and family*, Seoul: Yangseawom Publishing Co.]
- 박상진 (2014).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0, 77-109.
- [Park, S. J. (2014). Church Education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77-109.]
- 송규운, 송나리 (2018).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담론분석. *신학과 선교*, 52, 187-216.
- [Song, K. E. & Song, N. R. (2018). Analysis of Christian Discourse on the Problem of Low Birth. *Theology and Mission*, 52, 187-216.]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h, Y. H. & Kim, K. R. & Shin, C. W. & Bae, H. W. (2016). *A Study on the Changes in Fertility in Korea using Fertility Survey (1974~2012)*. Sea 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유계숙, 정현숙 (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You, K. S. & Chung, H. S. (2002). Young adults' perceptions of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3), 39-47.]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S. & Choi, H. J & Oh, Y. H. & Sea, M. H. & Park, S. K. & Do, S. R. (2009). *2009 National Marriage and Childbirth Trend Survey*. Sea 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립,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Y. & Kim, E. C. & Park, J. S. & B, S. J. & Oh, M. E. & Lee, S. R. & Lee, J. H. (2018). *201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Sea 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수인 (2019).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 *신학과 실천*, 63, 455-482.

- [Lee, S. I. (2019). Shifting educational paradigms for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eology and Praxis*, 63, 455-482.]
- 이수현 (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 [Yee, S. H. (2012). A Study on Married Women's Timing and Factors of Making the Decision to Stay Childless. *Journals of Women's Studies*. 22(3), 43-88.]
- 이윤정 (2020). 여대생의 부모됨 동기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소*, 20(7), 467-480.
- [Lee, Y. J. (2020). Affecting factors to motivation of parenthood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7), 467-480.]
- 정갑순 (2006). 저출산문제-교회 및 교회학교 영아부 역할과 비전. 제2차 교회학교 영아부 지도자 세미나. 한국기독교영유아 연구회.
- [Chung, G. S. Low fertility issue - role and vision of church and church school infant department. The 2nd Church School Infant Leader Seminar.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정갑순 (2009). 저출산과 교회의 역할. *충신대논총*, 29, 24-61.
- [Chung, G. S. (2009). Low fertility and the role of the church.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9, 24-61.]
- 정미라, 이희선, 배소연 (1995).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8.
- [Chung, M. R. & Lee, S. H. & Bae, S. Y. (1995). A study on perceptions and educational needs for pre-parenthood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179-198.]
- 정혜경, 송승현, 강훈구, 이훈현, 송승호, 강남미 (2011). 대학생 대상 임신출산, 모유수유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분석을 통한 예비부모 맞춤 교육시스템의 적. *한국디자인포럼*, 34, 347-356.
- [Chung, H. K. & Song, S. H. & Kang, H. K. & Lee, W. H. & Song, S. H. Kang, N. M. (2012). Application of the pregnancy, childbirth, breast-feeding UCC and web-based tailored pre-parental educational syst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Design Forum*, 34, 347-356.]
- 조성국(2012). 한국교회 위축 현상의 거시적 원인 분석과 대응적 교육방안 모색. *복음과 교육*, 11, 11-34.
- [Joh, S. G. (2012). Macroscopic observation on the cause of decrease phenomenon in Korean churches and the search for some responsive educational strategies. *Gospel And Education*. 11, 11-34.]
-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 (2021). *기혼 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hoi, S. H. & Lee, G. N. & Kim, G. T. (2021). *Married couple's childless choice and policy tasks*. Sea 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통계청 (2016). **2015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 [Statistics Korea (2016). *2015 Newlyweds Statistics Results*. Daejeon: Statistics Korea.]
- 통계청 (2020).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 [Statistics Korea (2020). *2019 Newlyweds Statistics Results*. Daejeon: Statistics Korea.]
- 최인희, 김은지, 이상림, 정다은. (2015). *무자녀 부부 가족의 증가와 가족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hoi, I. H. & Kim, E. G. & Lee, S. R. & Chung, D. E. (2015). *The increase in childless couples and their family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형정환 (2017). 기독교적 출산관, 출산의지, 자녀수, 자녀돌봄지원, 저출산. *신학과 선교*, 51, 129-157.
- [Hyun, J. H. (2017). Christian perspective on childbirth, childbirth will, number of hildren, support for child care, low birth. *Theology and Mission*. 51, 129-157.]
- Aspy, D. & Aspy, C. (1987). Understanding your child's physical development. Kesler, J. & Beers, R. & Neff, L. (Eds). *Parents & Children*. Wheaton: Victor Book, 184-185.
- Barden, P. (1987). Preparing for childbirth. Kesler, J. & Beers, R. & Neff, L. (Eds). *Parents & Children*. Wheaton:

Victor Book, 187-190.

Bright, B. (1987). Think before you have children!. Kesler, J. & Beers, R. & Neff, L. (Eds). *Parents & Children*.

Wheaton: Victor Book, 51-53.

Kesler J. & Beers, R. & Neff, L. (1987). *Parents & Children*. Wheaton: Victor Book.

Lawrence, E. &, Rothman, A. D. & Cobb, R. J. & Rothman, M. T. & Bradbury, T. N. (2008). Marital satisfac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41-50.

Suderman, S. (1987). We will be good parents?. Kesler, J. & Beers, R. & Neff, L. (Eds). *Parents & Children*. Wheaton: Victor Book, 33-36.